

#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통해 본 우리 산업의 고용창출능력

김 용 현\*

최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04년 우리경제는 4.7%의 경제성장률(KDI 전망치)이 전망되고, 41만 8천명(1.9%)의 취업자가 증가하였지만 여러 경제지표를 감안할 때 체감경기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자는 주로 36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15만 5천명, 6.4%)와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17만 3천명, 17.5%)에서 많이 증가하였다. 그나마 이러한 일자리가 2003년의 취업자 감소의 반등작용으로 이루어졌거나 최근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실물경제지표(소비 및 투자)의 개선에 의해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들은 2005년 경제성장률을 2004년 보다 다소 둔화된 4.0%대로 전망하고 있어 2005년의 노동시장 상황 역시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최근 일각에서 일고 있는 수출 호조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의 불확실한 경기상황과 일자리 창출 역량이 약한 경제구조적 문제와 관련하여 ‘고용 없는 성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져도 노동절약적 생산성 증가에 의해 고용은 증가하지 않을 상황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OECD국가와 비교해보고,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통해 우리 경제 및 각 산업의 고용창출(흡수)능력을 평가하며, 향후 일자리 창출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I. 고용구조 변화 - 서비스화의 진전

<표 1>에서는 중국 대만과 함께 OECD국가들의 업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yhk08@kli.re.kr).

〈표 1〉 국가별 취업자의 부문별 비중

(단위: %)

	산업분류	1990	1995	2000	2001	2002
한국	농림어업	17.9	11.8	10.6	10.0	9.3
	광공업	35.4	33.4	28.2	27.5	27.3
	제조업	27.2	23.6	20.3	19.8	19.1
	서비스업	46.7	54.8	61.2	62.6	63.3
일본	농림어업	7.2	5.7	5.1	4.9	4.7
	광공업	34.1	33.6	31.2	30.5	29.7
	제조업	24.1	22.5	20.5	20.0	19.3
	서비스업	58.2	60.4	63.1	63.9	64.8
중국	농림어업	60.1	52.9	53.0	52.3	50.9
	광공업	21.7	23.2	20.0	20.2	20.6
	제조업	13.3	14.4	11.2	11.1	11.3
	서비스업	18.2	23.9	27.1	27.6	28.5
대만	농림어업	12.8	10.5	7.8	7.5	7.6
	광공업	40.8	38.7	37.2	36.0	35.1
	제조업	32.0	27.1	28.0	27.6	27.1
	서비스업	46.3	48.5	55.0	56.5	57.2
호주	농림어업	5.5	4.9	4.9	4.9	4.2
	광공업	25.0	22.8	22.0	20.9	21.0
	제조업	15.1	13.6	12.6	12.0	12.1
	서비스업	69.5	72.3	73.1	74.2	74.8
프랑스	농림어업	1.4	1.6	1.7	1.6	1.5
	광공업	30.9	27.0	24.5	24.3	23.6
	제조업	22.6	19.6	17.8	17.5	16.8
	서비스업	67.7	71.4	73.9	74.2	74.9
독일	농림어업	3.5	3.1	2.6	2.6	2.5
	광공업	39.8	36.3	33.7	33.1	32.5
	제조업	31.6	25.5	23.9	23.7	23.6
	서비스업	56.7	60.5	63.7	64.3	65.0
스웨덴	농림어업	3.4	3.1	2.4	2.3	2.1
	광공업	29.2	25.9	24.6	23.8	23.1
	제조업	21.0	19.1	18.2	17.5	16.8
	서비스업	67.2	71.0	72.9	73.8	74.5
영국	농림어업	2.1	2.1	1.5	1.4	1.4
	광공업	32.3	27.4	25.4	24.9	24.1
	제조업	22.1	19.0	17.1	16.5	15.7
	서비스업	64.8	70.1	72.8	73.4	74.3
미국	농림어업	2.9	2.9	2.6	2.5	2.5
	광공업	26.2	24.0	23.0	22.5	21.6
	제조업	18.0	16.4	14.8	14.1	13.3
	서비스업	70.9	73.1	74.4	75.1	75.9

주: 1) 산업분류별 비율은 OECD 기준에 따름. 광공업(Industry)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을 포함하며, 서비스(Services)업은 도소매, 음식, 숙박, 창고, 금융, 보험, 사업, 개인서비스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2) 프랑스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임.

3) 산업별 취업자 비중의 합(=농림어업+광공업+서비스업)이 100이 되지 않는 것은 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는 분류불능 산업이 있기 때문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중국, 『중국통계연감』, 2003.

대만,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2003.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982-2002』, 2003.

전반적으로 농림어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취업자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업종별 고용구조가 서비스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2> 취업자의 부문별 비중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농림업업및어업	13.5	12.6	11.8	11.1	10.8	12.0	11.3	10.6	10.0	9.3	8.8	8.1
광공업	34.0	33.6	33.4	32.6	31.4	28.0	27.5	28.2	27.5	27.3	27.6	27.5
광업	0.3	0.2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제조업	24.5	24.0	23.6	22.7	21.4	19.6	19.8	20.3	19.8	19.1	19.0	19.0
전기가스및수도사업	0.3	0.4	0.3	0.4	0.4	0.3	0.3	0.3	0.3	0.2	0.3	0.3
건설업	8.9	9.1	9.4	9.5	9.6	7.9	7.3	7.5	7.3	7.9	8.2	8.1
서비스업	52.5	53.8	54.8	56.2	57.8	60.0	61.1	61.2	62.6	63.3	63.6	64.4
도소매및음식숙박업	25.4	26.5	26.5	27.3	27.7	27.9	28.3	28.2	27.2	27.1	26.4	26.0
운수창고및통신업	5.3	5.1	5.3	5.4	5.5	5.8	5.9	6.0	6.1	6.2	6.0	6.1
금융보험업	3.4	3.5	3.6	3.6	3.7	3.9	3.6	3.6	3.5	3.3	3.4	3.3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3.8	4.1	4.5	4.9	5.4	5.5	5.9	6.5	7.1	7.5	7.8	8.5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3.2	3.2	3.2	3.1	3.1	3.7	4.3	3.6	3.3	3.2	3.4	3.4
교육서비스업	5.0	4.8	5.0	5.1	5.3	5.8	5.6	5.6	5.7	6.0	6.7	6.7
보건및사회복지사업	1.5	1.5	1.5	1.5	1.6	1.8	1.9	2.0	2.2	2.5	2.4	2.6
기타서비스업	5.0	5.1	5.2	5.3	5.6	5.5	5.6	5.8	7.4	7.6	7.4	7.9

주: 2001년 이후 국제 및 외국기관은 기타 서비스업에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농림어업의 취업자 비중(2002년 기준 9.3%)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50.9%)을 제외하고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비중 또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일본, 중국, 대만, 독일을 제외한 서방국가들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취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2년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63.3%)은 중국(28.5%)과 대만(57.2%)보다는 높지만, 서비스업 비중이 74~76%대인 호주, 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 OECD 국가들 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일본(64.8%), 독일(65.0%)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구조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할 경우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감소하는 취업자를 서비스업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향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자리 부족문제나 청년층 실업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핵심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2>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광공업에서의 취업자 비중 하락은 제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전통적인 서비스업 부문인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1993년 이후 도소매·음식숙박업의 비중변화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1993년: 25.4%, 2004년: 26.0%)<sup>1)</sup>. 서비스업 부문에서 지난 10여년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1993년 전체취업자의 3.8%를 차지하던 것이 2004년에는 8.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 II. 전산업의 고용창출 능력 평가 - 고용창출여력 전반적으로 하락

<표 3>은 1980년 중반부터 최근까지 경제성장률, 고용증가율, 취업계수<sup>2)</sup> 및 고용탄성치를, [그림 1]은 1985년부터 최근까지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 〈취업계수(Employment to GDP Ratio)〉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취업자수를 총 산출액으로 나눈 수치로서 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취업자수를 의미하며,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취업계수=취업자수/실질GDP(10억원)

취업계수가 높다는 것은 같은 GDP 1단위를 만들어 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동원됐음을 의미하며, 취업계수가 낮다는 것은 같은 GDP 1단위를 노동절약적인 생산 방식으로 창출했음을 의미하거나, 자본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매일경제신문사, 「경제신어사전」, 2005 참조)

- 1) 전체 산업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을 국가별로 살펴보면(2002년 기준), 우리나라(27.1%)는 일본(22.7%), 대만(24.0%), 중국(6.7%), 호주(24.5%), 프랑스(16.4%), 독일(17.3%), 스웨덴(14.8%), 영국(19.6%), 미국(21.7%) 등의 나라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통적인 서비스업 부분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2) 한국은행의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에서 사용한 취업계수(=취업자수/산출액)는 산업연관표의 부속표인 고용표(= 각 산업부문에서 산출액을 생산하기 위해 1년 동안 실제 투입된 노동량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한 표)에서의 노동량(=취업자+피용자+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개념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재화 또는 서비스 생산활동에 종사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노동량의 측정단위는 연인원(man-year) 측정단위로 한 사람이 1년 동안 수행한 작업량을 의미한다. 산출액은 1년 동안 해당산업의 매출액과 재고액까지 포함된 총 산출(gross output)개념으로 중간생산단계인 재고를 제외한 부가가치(net output) 기준 GDP와는 다른 개념이다. 본 논의에서 취업계수를 구하는데 사용하는 취업자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며, 산출량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실질 GDP로 부가가치(net output)기준 산출량이다.

〈고용탄성치(GDP Elasticity of Employment)〉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증가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산업별 고용탄성치=산업의 취업자 증가율/산업의 GDP증가율

고용탄성치는 국내총생산이 1% 증가할 때 고용이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으로 그 수치가 1을 넘을 때는 탄력적이라 하고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고용탄성치가 낮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비해 취업자수의 증가 정도가 둔화됨을 의미한다.

(매일경제신문사, 「경제신어사전」, 2005 참조)

우리나라는 1980년 후반(1985~1990년)에 평균적으로 약 10.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과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취업자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1990년 초에서 외환위기 이전까지(1991~1996)는 평균적으로 7.7%의 경제성장률과 2.4%대의 취업자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견실한 경제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성장률을 시현하는 과정에서 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취업자수를 의미하는 취업계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참조). 1985~1990년 평균 취업계수는 63.5(명/10억원), 1991~1996년은 47.0(명/10억원), 1997~1999년은 39.8(명/10억원)로 하락하였고, 2004년은 32.7(명/10억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 참조). 이와같은 취업계수의 하락은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고용흡수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취업계수의 하락은 그러나 GDP 1단위를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생산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sup>3)</sup>. 취업계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향상과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동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요소가 노동에서 자본으로 쉽게 대체가 이루어지는 산업구조나 고용구조 하에서는 기술 혁신과 발전으로 취업계수의 하락 추세를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 여전히 서방선진국과 비교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고용구조가 서비스업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3) 취업계수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노동생산성과의 관계이다.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쪽이 높으면 한쪽은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의는 업종별 고용흡수력에 대한 논의 및 평가임으로 취업계수를 주로 고용흡수력과 연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서 취업계수의 하락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산업의 고용흡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인 노동이 직접적으로 자본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표 3>에서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sup>4)</sup>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3년에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2002: 7.0%→2003: 3.1%)되었지만 취업자 증가율(-0.14%)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등 “고용없는 성장”의 징후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즉, 경제성장률 한 만큼 고용도 늘어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2003년에 -0.04로 성장률이 1% 증가할 때 고용은 오히려 0.0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생산 증가가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2004년에는 고용탄성치가 0.47(경제성장 1%증가 할 때 취업자는 0.47% 증가)로 회복되었지만, 이의 원인이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실물경제의 호조에 기인하기 보다는 2003년의 마이너스 취업자 증가율에 대한 반등작용 혹은 정부의 단기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인해 만들어진 저숙련 취업자의 증가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능성과 2005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을 고려할 경우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수반한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표 3〉 고용탄성치와 취업계수

(단위 : 천명, %, 10억원, 명/10억)

	취업자	취업자 증가율	실질GDP	GDP증가율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1985~1990	16,557	3.84	260,800.6	9.2	63.5	0.42
1991~1996	19,668	2.40	418,537.6	7.7	47.0	0.31
1997~1999	20,481	-0.84	514,539.2	2.4	39.8	-0.34
2000	21,156	4.26	578,664.5	8.5	36.6	0.50
2001	21,572	1.97	600,865.9	3.8	35.9	0.51
2002	22,169	2.77	642,748.1	7.0	34.5	0.40
2003	22,139	-0.14	662,474.4	3.1	33.4	-0.04
2004	22,557	1.89	688,973.3 <sup>a)</sup>	4.7 <sup>a)</sup>	32.7 <sup>a)</sup>	0.47 <sup>a)</sup>

주 : 1) 취업계수 = 취업자/GDP, 고용탄성치 = 취업자증가율/GDP증가율.

2) 1985~1990, 1991~1996, 1997~1999의 취업자, 취업자 증가율, 실질 GDP, 실질 GDP 증가율은 그 기간의 평균치이며,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는 기간평균치로 계산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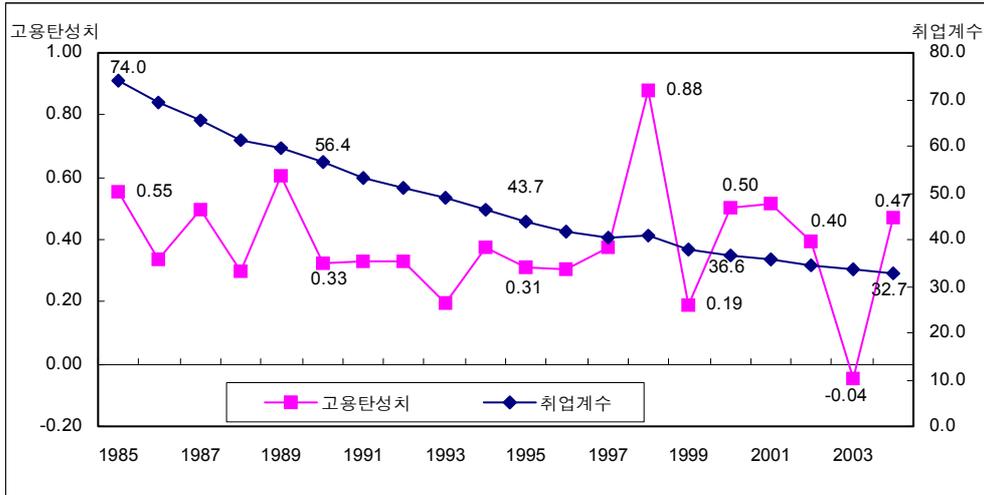
3) 2004년 경제성장률(4.7%)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이며, a)는 이에 근거하여 계산된 것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4) 고용탄성치는 GDP와 취업자의 log-log(double-log)회귀모형의 추정을 통해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본 논의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취업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하였다.

[그림 1]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의 추이

(단위 : 명/10억, 탄성치)



### III. 업종별 고용창출 - 서비스업의 활성화 필요

####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능력

<표 4>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2]에서는 고용탄성치와 취업계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의 1985~1990년 평균 취업계수는 78.3(명/10억원), 1991~1996년은 53.7(명/10억원), 2000년은 28.4(명/10억원)로 급감하였으며, 2003년에는 24.1(명/10억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이는 같은 기간의 서비스업 취업계수 하락폭과는 대조가 되고 있는데, 2003년 취업계수는 1985~1990년에 비해 제조업은 약 3.2배 이상 하락하고, 서비스업은 1.3배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985년부터 2003년 까지 취업계수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계수는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서비스업에서는 완만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에 따르면 1995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의 취업계수가 제조업의 취업계수를 능가하고 있어, 1995년 이후 서비스업에서의 고용흡수력이 제조업에서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에서 취업계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은 제조업 생산에 있어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자본 집약적 생산 증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제조업에서 취업계수의 하락은 생산요소인 노동이 자본으로 쉽고 빠르게 대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율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부 업종(예를들면, 운수창고통신업)을 제외하고 제조업처럼 노동과 자본의 이동이 탄력적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그림 2]에서 서비스업의 취업계수가 제조업의 취업계수 추이보다 완만하게 하락하는 이유가 되며, 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고용흡수력이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생산성증가율에 의한 고용흡수력(고용탄성치)을 보면, 2000년 이후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율이 고용탄성치에 마이너스로 반영되어 제조업은 “고용없는 성장”을 하였음을 보여 준다<sup>5)</sup>. 2003년의 경우 1%의 제조업 성장에 0.18%의 취업자가 감소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 서비스업에서 고용탄성치는 0.13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비스업의 고용탄성치 추이는 제조업과 비교하여 다소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의 고용탄성치 추세가 서비스업에서의 추세 보다 변동이 심한 것은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보다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취업자증가율의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서비스업에서의 고용탄성치는 제조업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에 따른 고용흡수력 또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높게 나타나고

〈표 4〉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탄성치와 취업계수

(단위: 명/10억)

	제조업		서비스업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1985~1990	78.3	0.57	56.6	0.64
1991~1996	53.7	-0.07	50.0	0.76
1997~1999	35.6	-0.79	47.7	0.76
2000	28.4	0.39	46.3	0.72
2001	27.6	-0.30	46.0	0.86
2002	25.5	-0.08	44.4	0.52
2003	24.1	- 0.18	43.8	0.13

주: 1) 취업계수=취업자/GDP,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GDP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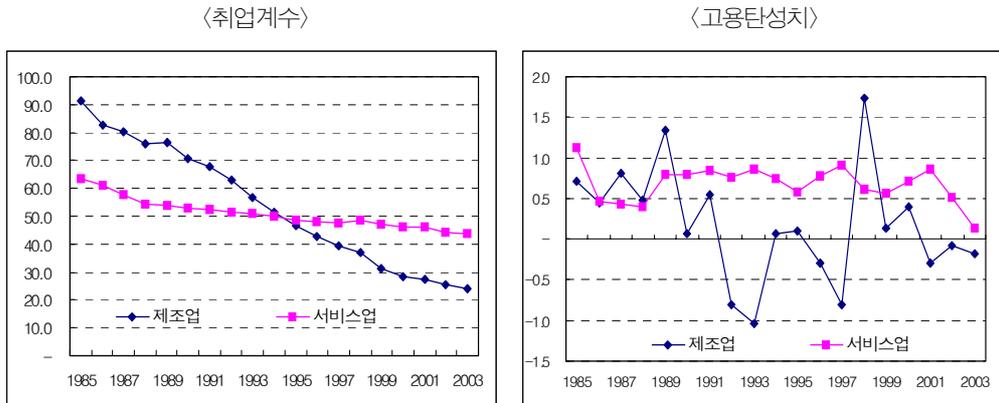
2)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괄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로 계산.

5) 단, 2004년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2.0%를 기록하여 생산성증가를 예상하면, 고용탄성치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계수 및 고용탄성치 추이

(단위: 명/10억, 탄성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이후부터 서비스업에서의 고용탄성치의 증가추이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2003년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율(2002년 :4.0%→2003년 : 0.2%)이 서비스업 GDP증가율(2002년 :7.8%→2003년 : 1.8%) 보다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 2. 서비스업의 부문별 고용창출능력

앞에서 서비스업부문에서의 취업자 비중이나 서비스업의 일자리 흡수력이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OECD에서 분류하고 있는 4가지 범주의 서비스업을 구분하였다. 4가지 큰 범주는 사업서비스업 (Producer Services), 배분서비스업(Distributive Services), 개인서비스(Personal Services) 그리고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업이다(<표 5> 참조).

사업서비스업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중간투입물로 가구에서도 소비될 수 있으나 주로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되는 서비스업이다. 높은 정보컨텐츠를 가지는 것으로 정보처리 및 컴퓨터 관련 운영업, 연구개발업, 인력소개업, 금융, 보험, 부동산업이 포함되며 향후 노동시장에서 지식경제의 선두자로 광범위한 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ICT부분과 숙련 노동자(high-skilled worker)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 부분이다.

배분서비스업은 상품과 정보, 사람을 운송하는 서비스업으로 여행업과 같이 일부는

6) OECD, "Employment in the Service Economy: A Reassessment," 2000에서 분류하고 있는 방식으로 분류하였음.

최종소비 단계에서의 서비스업이다. 배분서비스업에 속하는 통신업은 우편송달 및 유무선통신업, 여행, 전화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서비스업은 주로 전통서비스(음식·숙박·가사)업 부문으로 최종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업자가 직접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종소비단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업이다. 개인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 부문이라 할 수 없지만 미숙련기술(low-skilled)을 가진 근로자나 여성들에게 중요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부문이다. 여기에서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하수처리 및 폐기물처리, 회원단체, 수리업, 이미용 세탁업 등 기타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사회서비스업은 최종소비단계에서 가구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지만, 주로 집합적 서비스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시장적 이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학위나 고급자격증이 필요한 서비스분야도 있지만 사회복지사업과 같이 저숙련 기술수준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도 다수 포함한다.

〈표 5〉 서비스업의 분류

사업서비스업 (Producer Services)	배분서비스업 (Distributive Services)	개인서비스업 (Personal Services)	사회서비스업 (Social Services)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운수업 통신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가사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주: 도소매업은 실제 배분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은행의 GDP분류체계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으로 함께 묶여 있고, 서비스 특성이 주로 가계의 최종소비단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업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서비스업에 포함시켰음기.

자료: OECD, "Employment in the Service Economy: A Reassessment," 2000.

4개의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고용탄성치와 취업계수를 <표 6>에 제시하였다<sup>8)</sup>. 제조업이나 전체서비스업 부문과는 달리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분야에서의 취업계수(=취업자 증가율/경제성장률)는 증가하는 모습을, 배분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의 취업계수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 중에서 사업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생산요소인 노동이 기술발전이 따라 자본으로 쉽게 대체가 되지 않으면서 지식기반 사회에서 고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업종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업서비스업의 고용계수는 1994년과 2000년 사이 19.3(명/10억)에서 20.4(명/10억)로 증가하여 고용흡수력이 향상되었고, 사회서비스업은 1994년 32.3(명/10억)에서 2003년

7)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이 서비스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배분서비스업에 포함했을 경우 배분서비스업의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 그리고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이 제외된 개인서비스업의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는 달라짐(<부록 1> 참고).

8) 보다 구체적인 산업대분류별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는 <부록 2>와 <부록 3> 참고.

〈표 6〉 서비스업의 부문별 고용탄성치와 취업계수(사업·배분·개인·사회서비스업)

(단위: 명/10억)

	사업서비스업 (Producer Services)		배분서비스업 (Distributive Services)		개인서비스업 (Personal Services)		사회서비스업 (Social Services)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1993	19.3	1.88	55.2	0.36	114.5	-	32.8	-
1994	19.3	1.02	50.4	0.02	112.3	0.78	32.3	0.56
1995	19.1	0.88	47.8	0.49	107.4	0.42	32.6	1.32
1996	19.2	1.13	45.6	0.45	105.9	0.77	32.1	0.57
1997	19.5	1.28	43.0	0.44	106.8	1.29	32.2	1.10
1998	19.4	1.42	43.3	0.56	112.7	0.53	35.1	-6.51
1999	19.6	1.40	39.6	0.25	101.9	0.22	36.0	1.94
2000	20.5	2.06	34.8	0.26	98.8	0.59	35.5	-1.34
2001	21.5	2.55	31.8	0.34	97.4	0.72	35.6	1.04
2002	20.3	0.43	30.2	0.40	94.4	0.48	36.6	1.80
2003	20.4	1.31	28.4	-0.74	93.6	1.48	38.1	2.23

주: 1) 취업계수=취업자/GDP,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GDP증가율.

2) 외환위기기간인 1998년은 취업자증가율과 GDP증가율이 모두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어 고용탄성치는 플러스가 되었음.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로 계산.

38.1(명/10억)로 고용계수가 증가하였다. 반면, 배분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흡수역력은 1994년과 2003년 사이 50.4→28.4, 112.3→93.6로 각각 감소하여 제조업에서의 취업계수 하락과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업종별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생산성증가율)는 사업서비스업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한 서비스업은 배분서비스업 부문으로 1% 생산성 증가에 취업자는 오히려 0.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용탄성치: -0.74) 1994년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에서의 2003년 고용탄성치는 1.31, 1.48, 2.23으로 각각 나타나 생산성 증가에 따른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의 경우는 고 부가가치 업종으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고용탄성치)이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산업의 고용흡수력도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향후 이 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V. 결론 - 고 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필요

세계경제의 고용구조가 서비스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도 서비스업 위주로 고용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또한 전체산업의 취업자 대비 실질

GDP를 나타내는 취업계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경제의 고용흡수역력이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취업계수를 확인해 본 결과 고용흡수능력은 1995년 중반을 기점으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달리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과 자본의 생산요소대체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이며, 서비스업은 제조업 생산에서와 같이 자본이나 기술의존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근 취업자 증가가 저 부가가치 서비스업 부문에서 일어났고,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의 고용비율은 여전히 서방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성장 1%당 취업자 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의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최근 몇년간 고용탄성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 고용 없는 성장이 앞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일부업종의 고용탄성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역력이 높다. 서비스업의 경우 경기변화에 따른 고용탄성치의 변화는 제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서비스업으로 고용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고용흡수력과 일자리 창출이 높은 고 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예를 들면 사업서비스업(Producer Services)이나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자동화 등으로 고용흡수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만을 가지고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일정 정도 한계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부족현상과 청년층 실업의 해소를 위해서는 수없이 많고 다양한 서비스업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하며,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새로운 산업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자리 창출이 저 부가가치 위주의 서비스업에서 일어났지만 여기서도 고용흡수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회복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고 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정보통신 관련 사업지원서비스업, 관광 의료 교육 문화와 같은 사회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선진국 수준의 고용구조로 이행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매일경제신문사, 『경제신어사전』, 2005.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5년 1월호(창간호).

한국은행, “2000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조사통계월보』,

2000.

OECD, *Employment in the Service Economy: A Reassessment*, 2000.

〈부표 1〉 배분·개인 서비스의 취업계수와 고용탄성치

(단위: 명/10억)

	배분서비스업 <sup>a</sup> (Distributive Services)		개인서비스업 <sup>b</sup> (Personal Services)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취업계수	고용탄성치
1993	101.8	-	83.2	-
1994	99.4	0.71	78.0	0.37
1995	94.5	0.39	74.5	0.52
1996	92.3	0.66	73.6	0.78
1997	90.6	0.65	75.5	1.53
1998	94.5	0.53 <sup>c</sup>	74.1	1.30 <sup>c</sup>
1999	84.9	0.21	70.3	0.40
2000	78.8	0.34	71.0	1.14
2001	72.2	-0.05	85.9	4.31
2002	69.1	0.34	83.8	0.70
2003	67.2	-11.14	81.0	19.55 <sup>c</sup>

주: 1) a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포함했을 때이며, b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제외되었을 때임.

2) 취업계수=취업자/GDP,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GDP증가율.

3) c는 취업자 증가율과 GDP증가율이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나 고용탄성치가 플러스가 된 것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로 계산.

〈부표 2〉 산업대분류별 취업계수

(단위: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농업임업및어업	117.5	112.5	103.1	97.4	91.6	102.6	93.1	89.6	84.9	84.7	86.0
광업	20.4	15.7	11.1	10.3	11.8	10.5	9.5	8.2	8.8	9.4	8.8
제조업	56.9	51.4	46.6	43.0	39.4	36.9	31.1	28.4	27.6	25.5	24.1
전기가스및수도사업	8.9	8.6	7.9	7.7	7.3	5.7	5.3	4.8	4.1	3.4	4.7
건설업	40.5	40.6	39.9	38.0	37.8	32.7	33.2	36.9	35.0	37.5	36.1
도소매및음식숙박업	123.5	122.5	117.3	115.6	116.4	125.4	111.7	107.4	101.0	97.8	97.7
운수창고및통신업	55.2	50.4	47.8	45.6	43.0	43.3	39.6	34.8	31.8	30.2	28.4
금융보험업	26.3	24.8	22.8	22.3	22.2	22.8	21.3	21.3	19.9	15.7	15.7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15.6	16.2	16.9	17.5	18.1	17.5	18.6	20.1	22.4	23.2	23.5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25.0	25.5	25.4	24.0	23.6	26.6	29.9	26.3	23.7	23.1	24.3
교육서비스업	42.8	41.4	42.8	43.5	44.4	46.3	45.1	46.3	45.9	47.5	50.8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7.4	26.6	26.1	25.8	26.1	30.1	30.6	33.6	40.4	43.5	40.6
기타서비스업	85.3	79.5	75.7	74.6	76.4	75.3	71.3	72.0	86.8	84.7	82.1

주: 산업별 취업계수 = 산업별 취업자 / 산업별 GDP.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로 계산.

〈부표 3〉 산업대분류별 고용탄성치

(단위 : 탄성치)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농업임업및어업	-9.78	-0.67	-1.45	-0.36	-0.77	-0.67	-2.14	-3.78	1.05 <sup>C</sup>	0.81 <sup>C</sup>
광업	22.00 <sup>C</sup>	5.38 <sup>C</sup>	3.85 <sup>C</sup>	-8.03	1.62 <sup>C</sup>	-0.84	-9.25	-88.58	0.21 <sup>C</sup>	-1.35
제조업	0.07	0.11	-0.30	-0.81	1.73 <sup>C</sup>	0.13	0.39	-0.30	-0.08	-0.18
전기가스및수도사업	0.77	-0.50	0.72	0.41	63.77 <sup>C</sup>	0.09	0.27	-1.23	-1.33	7.87
건설업	1.02	0.78	0.41	0.78	2.20 <sup>C</sup>	0.84	-2.12	0.03	3.69	0.49
도소매및음식숙박업	0.90	0.40	0.76	1.31	0.43 <sup>C</sup>	0.19	0.49	-0.34	0.39	1.04 <sup>C</sup>
운수창고및통신업	0.02	0.49	0.45	0.44	0.56 <sup>C</sup>	0.25	0.26	0.34	0.40	-0.74
금융보험업	0.49	0.37	0.61	0.88	0.28 <sup>C</sup>	-2.58	1.00	0.13	-0.16	0.90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1.65	1.52	1.50	1.49	3.54 <sup>C</sup>	3.18	2.33	25.98	1.79	1.51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	1.78	0.77	-0.20	0.57	22.57	4.44	-39.74	-5.29	0.04	3.48
교육서비스업	0.08	1.96	1.55	2.05	-2.75	-1.35	2.22	0.83	1.82	2.89
보건및사회복지사업	0.56	0.72	0.45	1.20	-1.97	1.35	-4.67	-3.05	2.44	-0.43
기타서비스업	0.33	0.49	0.74	1.47	1.21 <sup>C</sup>	0.38	1.15	4.22	0.71	18.01 <sup>C</sup>

주 : 1) 산업별 취업계수 = 산업별 취업자 / 산업별 GDP

2) 산업대분류별 고용탄성치에서는 취업자증가율과 GDP증가율이 모두 마이너스(C)로 나타나 고용탄성치가 플러스로 계산된 업종이 있음.

자료 : <부표 2> 참조.